



202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포럼(서울)

우리 모두가 땀 수 있는 체육관, 운동장을 만들자!

날짜: 2022년 11월 11일(금요일)

시간: 15:00 - 18:00

장소: 송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328호

〔2022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포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체육관, 운동장을 만들자!

■ 세부 프로그램

시간	포럼 내용	전문패널 및 발제자	사회
14:40-15:00	등록 및 접수		
15:00-15:05	환영사		김대권 (송실대 인문대학장)
15:05-15:10	인사말 및 소개		박주영 (송실대)
1부	전문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스포츠 종목 참여 실태 및 인식 개선		
15:10-15:25 (15분)	<발제> “차별과 평등 차이와 평등”	박채희(한국체육대학교)	박주영 (송실대)
15:25-16:15 (50분)	<자유토론 1> • 전문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차별과 평등 - 인터뷰 영상시청 - 토론 및 참석자 질 의응답	• 전문패널 - 이지하(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정용철(서강대학교) • 패널 - 오수현(댄스스포츠 선수) - 김태경(KLPGA 선수)	
16:15-16:30 (15분)	휴식 및 자리정돈		
2부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스포츠 종목 참여 실태 및 인식 개선		
16:30-16:45 (15분)	<발제> “변화하는 MZ세대, 함께 될 수 있는 대학스포츠동아리!”	오경아(송실대학교)	오경아 (송실대)
16:45-17:35 (50분)	<자유토론 2> • 송실대학교 스포츠학부 동아리 학생들의 차별과 평등 - 인터뷰 영상시청 - 토론 및 참석자 질 의응답	• 전문패널 - 이지하(송실대학교) - 정용철(서강대학교) • 학생패널 - 서유지, 장하얀(송실대 여자풋살 동아리) - 한승효(송실대 여자농구 동아리) - 박지민, 문석민, 김시완(송실대 축구 동아리) - 인수민(송실대 웨이트트레이닝 동아리)	
3부	종합토론		
17:35-17:55 (20분)	- 패널 및 참석자 토 론	참석자 전원	박주영 (송실대)
17:55-18:00	정리 및 폐회		

목 차

인사말 및 소개

1. 발제 “차별과 평등, 차이와 평등”	1
- 박채희 (한국체육대학교)	
2. 발제 변화하는 MZ세대, 함께 땀 수 있는 대학스포츠동아리!.....	3
- 오경아 (송실대학교)	
3. 전문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스포츠 종목 참여 실태 및 인식 개선.....	5
전문패널	
- 이지하(송실대 사회복지학부 여성복지학 전공교수).....	5
- 정용철(서강대학교).....	6
패널	
- 오수현(송실대 대학원 박사과정, 댄스스포츠 전문실기 졸업생)	
- 김태경(KLPGA 선수, 골프 전문실기 졸업생)	
4. 자유토론.....	8
- 1부 전문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스포츠 종목 참여 실태 및 인식 개선	
- 2부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스포츠 종목 참여 실태 및 인식 개선	
5. 메모장.....	9

<발제>

차별과 평등 vs. 차이와 평등

한국체육대학교 박채희 교수

인간으로 태어나 사회에 속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우린 인종, 나이, 성(별)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차이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인지하며 생활한다. 존재하는 차이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나 왜곡으로 때론 차별로 이어지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의도치 않는 분열을 경험하기도 한다.

인종차별주의는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기에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는 믿음에서의 차별이며 연령(나이)차별주의는 연대기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고정관념과 차별, 성차별주의는 한 성이 다른 성보다 본래 우월하기에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차별이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래 체육계에서도 성평등과 평등권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및 접근 가능한 정보가 증가되고 있으며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다. 어린 시절 남아와 여아가 자신의 스포츠를 더 즐기고 미래 직업으로 정하고 가야하는 그 길을 생각했을 때 소수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얻게 되는 기회는 부족하며 운 좋게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여성 운동선수로 직업을 갖는다고 해도 많은 종목에서 임금의 격차, 지속가능한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 등 부딪쳐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2018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치러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팀은 남자 대표팀과 동등한 임금과 대우를 위해 싸웠다는 뉴스 기사¹⁾가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스포츠(체육)’는 전문스포츠(전문체육)와 여가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생활스포츠(생활체육)의 영역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며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회에서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여성은 ‘남성적’으로 인식되고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남성은 ‘여성성이 높음’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여성은 은밀하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 성희롱 및 폭행에 노출되기도 한다.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어떤 형태로든 제한되어 있고 여성들은 지금도 평등한 경기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점진적이라도 여성전문스포츠인의 증가와 여가활동으로 스포츠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증가는 위의 인식이나 문제 해결에 초석이 될 것이며 단단한 초석 마련을 위해 오늘 포럼의 주제인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땀 흘릴 수 있는 체육관과 운동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되겠지만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의 영역에서 여성 지도자의 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https://finance.yahoo.com/news/usa-women-apos-hockey-team-122446929.html?guccounter=1&guce_referrer=aHR0cHM6Ly93d3cuZ29vZ2x1LnNvbS8&guce_referrer_sig=AQAAADdX7j5HFGwyzPuoQ2z8PEuqiff2vSute-ZO1cTL-8mCljzv0RcC-NR54m66Vr-JWHfC2IIAhFYbxhQfUDYwC54srjG3F4KuwetjCMLS_QMCnCyH-0G5IyQoAkaxgqZe3l3lANdUyFaRMWoKXgcfk8CqdI7CU30RHKfH590PIRaH

모두의 체육관과 운동장을 위한 스포츠 코칭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으로 최근 스포츠계에서의 성별 참여 차이가 좁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스포츠 참여와 거버넌스 부분, 코칭을 포함한 스포츠 활동 참여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부문 전반에 성 불평등은 존재한다.



<자료출처²⁾ 대한체육회 등록 지도자 현황 일부 발췌>

위 자료에서와 같이 통상적으로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직업으로서의 코칭 분야는 남성이 지배한다. 단, 여성 참여자 비율이 높은 스포츠(예, 댄스, 체조, 피겨 스케이팅 등)에서 여성 지도자의 비율이 높지만 많은 남성 지도자들이 여성팀을 지도하며 남성팀을 지도하는 여성은 극히 드물다. 지난 달 30일 바레인에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가 주최한 성평등 세미나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올림픽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성평등, 다양성 및 포용을 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참가한 여성선수의 비율이 49%로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남녀평등을 이루었다 평가받는 올림픽이며 2년 후 치러질 파리 올림픽은 완전한 성평등 달성을 약속한 올림픽이다. 그러나 여성 지도자와 기술 임원(심판)진의 비율은 동등화하고는 여전히 큰 간격이 존재한다. 지난 10년 동안 하계 및 동계 올림픽에서 공인된 지도자의 10%만이 여성이었고, 여성 기술 임원(심판) 비율 역시 30%에 불과했다는 여러 뉴스기사가 남녀비율의 불평등을 보도하고 있다.

타 분야와 달리 스포츠는 ‘여성’과 ‘남성’의 영역으로 나뉘며 다수의 스포츠에서 남녀 혼합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여성 지도자를 통한 친화적 지도와 코칭은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여성이나 여아의 스포츠 참여에서의 높은 중퇴율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종목 별 남녀 학생 비율에 따라 지도자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본 발표에서 사례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스포츠계에서 우리는 남녀의 차이를 인식하고 탐구하여 평등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차별받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개발해야 한다. 체육 또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에, 인간이라는 평등한 존재로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서로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고 그 차이로 인해 스포츠나 운동 참여의 기회를 차별받는 실질적인 장벽을 거두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별, 나이, 인종의 고정관념과 제도적 모순을 타파하여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기쁨, 성취감 등의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https://g1.sports.or.kr/stat/stat01.do>

<발제>

변화하는 MZ세대, 함께 뛸 수 있는 대학스포츠동아리!

승실대학교 오경아 교수

그동안 대학스포츠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대학스포츠의 농구와 배구는 대학운동부의 인기와 수준을 프로스포츠 그 이상으로 만들었으며, 학원스포츠를 통해 엘리트 스포츠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대학스포츠는 대학운동부를 대표하는 의미였다.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성장과 대학의 구조조정, 대학체육특기자 입시비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및 학습권의 침해 등의 문제로 대학스포츠는 매우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로 대학스포츠의 의미와 시스템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한국대학스포츠협회(KUSF)에서는 그동안 대학운동부 중심의 리그와 시스템에서 대학스포츠동아리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다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선진 스포츠문화 만들기에 앞장섰다. 일반 대학생들을 위한 남·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의 ‘KUSF 클럽챔피언십’을 개최한 것이 한 예이다. ‘KUSF 클럽챔피언십’은 농구, 축구, 야구, 배구, 3×3농구 총 5종목으로 야구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남자부, 여자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478개팀 8054명(2019기준)의 남·녀 대학생이 열정을 쏟아내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민희, 2021). 이러한 현상은 2014년 학교체육정책의 변화로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다양한 스포츠와 스포츠리그를 경험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은 눈에 띄게 활발해졌으며 종목의 선호도에 있어서 남·녀의 성역도 없어져 가고 있다. 한 예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예능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로 인해 여자 축구 및 풋살이 활성화되었다고 한다(문화일보, 2022.11.08.). 하지만 이미 젊은 MZ세대 여성층은 종목의 성역 없이 축구가 활성화되어 있다. ‘골때리는 그녀들’의 참가자들 중 기성세대인 XY세대 여성 참가자들은 대부분 그동안 축구의 경험이 없어서 기초기능부터 가르치고 연습하지만 MZ세대의 여성 참가자들은 유소년 시절부터 학교스포츠클럽에서 경험한 축구의 기본기를 모두 갖추고 있거나 축구클럽팀 출신이다.

요즘 MZ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로 유소년시절부터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성별과 상관없이 경험하였다. 이렇듯 대학의 다음 세대들은 남·녀 모두 스포츠활동에 매우 적극적이고 다양한 욕구와 경험주의, 자기표현을 통한 자기 정체성 및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활동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우리 대학가는 이러한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여전히 대학스포츠 시스템과 시설 및 환경은 일반 대학생들보다 학교운동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중심에 국한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사편성의 교양체육뿐만 아니라 체육전공의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 운영에도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송실대학교 스포츠학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송실대학교 스포츠학부는 1998년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학과의 목적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실기동아리의 활동을 친교목적이 아닌 전공실기역량강화를 위한 1인 1스포츠 전공프로그램으로 운영해왔다. 정동아리 6개 종목의 수영, 축구, 농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댄스스포츠 종목과 준동아리 3개 종목의 스키, 스킨스쿠버, 배구 종목이 남·녀 혼성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2017년 갑자기 축구와 농구 종목 동아리에서 여학생들이 단성 동아리 활동을 선언하고 혼성이었던 동아리에서 여학생들이 대거 탈퇴를 하는 사건이 생겼다. 당시 학생회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편 가르기, 소속감 저해, 공동체 화합의 문제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갈등은 젊은 MZ세대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남성성이 강한 체육전공에서 여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와 평등, 권리에 대해 고민하는 사건이었다.

이전의 동아리운영을 살펴보면 축구와 농구 동아리는 수영, 배드민턴, 보디빌딩, 댄스스포츠 동아리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거의 없는 종목이었다. 그러나 Z세대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남·녀 성역 없이 즐겼던 종목들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되어 갑자기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 동아리들의 문제였다. 그동안 여성의 비율이 전혀 없었던 동아리에서 남성 중심의 프로그램과 신체적 차이를 배려하지 않아 생기는 여학생들의 불만족이 표출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축구와 농구동아리는 남성과 여성 단성 동아리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남성성이 높은 체육전공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와 권리를 인식하지 못한 문제였으며 MZ세대들의 요구에 변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대학스포츠의 현실이었다.

앞으로 학과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전공 학과의 소속으로 함께 어울려 땀 수 있는 체육관과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될 체육전공 대학생들에게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변화하는 생활체육 환경을 인식시키고 그에 맞추어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3) 김민희(2021). 서울스포츠 372호, 서울특별시체육회.
문화일보(2022.11.08.). “여자가 무슨 축구?... 요즘은 존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021/0002540165>

<토론>

청년세대 담론과 성평등 사회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지하

청년 세대 담론은, 신자유주의, 경기침체,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문제에 직면한 실제 청년 기 남녀 인구집단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사회적 조건과 더불어 청년층에게 사회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거나 사회문제의 원인을 귀속시키는 기성세대 때문에 더욱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 세대가 주어진 어두운 사회적 조건 하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수많은 협상과 선택, 일상적 고투와 돌출적 일탈의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년 세대의 ‘포기’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대적 젠더관계에 기반한 표준적 생애주기나 표준적 정상가족의 형태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 자체를 위기나 어려움으로 보고 청년 주체들의 ‘포기’에 주목하여 그들을 동정심의 대상으로 만드는 시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나타나는 청년들의 새로운 생애주기 시도와 라이프 스타일 실험이 새로운 형태의 젠더 관계를 등장시키고 관행과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불협화음과 사회적 파열음이 들리겠지만, 그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변화의 조짐 자체를 무시하고 젠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청년들의 현실을 청년 세대 담론 안에 좀더 많이 반영하는 것에 못지 않게, 남성 청년들이 과거의 진부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각본을 벗어나 자신의 시민권과 성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고 유연한 남성성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 문화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⁴⁾

성평등사회는 여자와 남자가 기계적으로 똑같고 평등한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대우받으며, 양자택일적 성별분업 체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사회입니다.

페미니즘 내에서의 다양한 이론들, 그 전통에 기초한 여성주의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 유형들, 페미니즘 전통과 포스트모더니즘과의 불일치점 등 이론들 내에서의 긴장관계와 불일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의 주요 공통점은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사회구조적인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과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들의 연대와 사회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4) 배은경(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 7-41.

<토론>

운동(exercise)이 운동(movement)이 되는 순간

서강대학교 정반

우리 앞에 있는 운동장은 평평한가요? 그래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곳곳이 페이고 깎인 상처투성입니다. 온통 울퉁불퉁한 운동장입니다. 몇 발자국 뒤로 가서 전체 운동장을 다시 볼까요? 울퉁불퉁한 표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함이 보이는군요.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스포츠의 세계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평평해지기를 바랍니다만 아직입니다. 한쪽에게는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인데 다른 한쪽은 여전히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넓게 펼쳐진 운동장에 왜 못 들어가냐? 누가 하지 말라고 했냐고 묻습니다. 예전엔 그랬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반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알다시피 이 자리는 스포츠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직’ 평평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도쿄올림픽은 역사상 최초의 성평등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참가한 여성 선수의 비율이 정확히는 49%입니다. ‘아직’ 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거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오는 데 126년 걸렸습니다. 고대올림픽은 관람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근대올림픽이 시작할 당시만 해도 여성이 스포츠를 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전문가 소견을 밝힌 남성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근대올림픽인 아테네 올림픽에는 단 한 명의 여성 선수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근대올림픽을 창시한 쿠베르탱 남작이 여성의 올림픽 참가에 분명한 반대의를 밝혔기 때문이지요. 그 후 약 반 세기가량 여성 올림픽의 비율은 전체 참가자의 10% 정도에 머물렀고 여성이 올림픽 전 종목에 참여하게 된 것도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이르러서야입니다.

마라톤은 여성에게 너무 힘든 운동으로 신체적, 정신적 압박이 심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유력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도 오랜 시간 여성에게는 금지되었지요. 196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여성 최초로 공식참가한 캐서린 스위처는 대회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완주합니다. 물론 대회가 끝나고 실격되지요. 불과 반 세기 전의 일입니다. 그녀가 등 뒤에 붙였던 261번은 ‘아직’ 평평한 스포츠 세계의 도래를 목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아마추어 육상연맹에서 제명까지 되었지만 결국 5년 후인 1972년 보스턴 마라톤 주최 측은 여성 선수의 출전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1984년 여자 마라톤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데도 기여했음은 물론이지요.

최근 예능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여자축구는 평평하지 않은 운동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달리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허락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피치에 그려진 하얀 선을 넘어 경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 ‘여자도 축구 해?’와 같은 어이없는 편견의 시선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럴 때마다 피치를 딛는 발에 어떤지 힘이 들어간다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의 김혼비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일방적으로 나눈 구획들이 선명하게 보일 때면, 우리가 속한 팀과 거기서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이 그 영역을 어지럽히고 경계를 흐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운동’이 되는 순간이다.”⁵⁾

5) 김혼비,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서울: 믿음사, 2018), 272.

<자유토론>

1부 전문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스포츠 종목 참여 실태 및 인식 개선

『질문』

1. 여성의 존엄성, 평등 및 권리에 대한 의식 함양
2.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
3. 신체 및 생리적 성차의 이해
4. 심리 및 사회적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

2부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스포츠 종목 참여 실태 및 인식 개선

『질문』

<스포츠전공의 이미지>

1. 남들이 바라보는 스포츠전공 학생의 모습
2. 내가 생각하는 스포츠전공 학생의 모습
3. 내가 생각하는 스포츠전공 여학생, 남학생의 모습은 같은가 다른가?

<실기수업 차별과 평등>

4. 실기수업 중 차별 또는 동등한 위치를 느끼지 못했던 적이 있는가? 사례소개
5. 실기수업 평가 시 남녀 신체적차이에서 오는 수준을 어떻게 하면 가장 형평성 있게 평가할수 있을까?

<실기동아리 차별과 평등>

6. 체육전공 학생들의 실기동아리 차별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사례소개
7. 동아리종목별 혼성, 여성, 남성 종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8. 지금 동아리는 남녀 성비 훈련방법 등이 어떠한지 소개

< 메모장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ruled paper. It features approximately 20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The paper is otherwise blank, with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202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포럼(서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체육관, 운동장을 만들자!